

〈하진양문록〉의 애정갈등과 여성독자의 자기검열*

- 남자주인공을 위한 변(辯) -

이 경 하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 문제제기

2010년 가을 KBS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이하 <성균관>)¹⁾은 ‘남장여자(男裝女子)’를 비롯한 여성영웅소설의 핵심 화소들을²⁾ 적극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고전문학 전공자들 사이에서도 남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6).

1) 이 드라마는 정은필의 장편소설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 1·2(파란, 2007)와 『규장각 각신들의 나날』 1·2(파란, 2009)를 원작으로 하되 TV드라마의 형식에 맞게 인물과 사건, 갈등 구도를 재구성하였다. 원작 소설과 각색된 드라마 사이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뛰어난 능력의 여주인공이 남장을 하고 과거에 응시하여 성균관에 입학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주제어: 하진양문록, 여성영웅소설, 남자주인공, 여성독자, 애정욕망, 자기검열
Hajinyangmunok, heroine novel, male main character, female reader, love-lust, self-censorship

다른 관심을 모았던 작품이다. 뛰어난 능력의 여주인공이 남장을 하고 남성 성별화된 세계인 성균관에서 활약한다는 기본적인 설정 외에도, 몰락한 집안이라는 가정적 배경,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갈등구조, 남녀 주인공들에 대한 늑흔 등 여성영웅소설의 낯익은 공식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³⁾ 21세기에 들어 크게 유행하는 퓨전사극 계열의 <성균관>은 여성영웅소설이라는 고전을 문화콘텐츠로 적극 활용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성균관>은 남장여자 김윤식의 성공담일 뿐 아니라 재자가인(才子佳人) 남녀주인공의 사랑 이야기이다. 여주인공의 입신(立身)과 능력 발휘뿐 아니라, 남장이라는 비밀이 남녀주인공의 애정전선에 일으키는 갈등이 <성균관>의 핵심적인 흥미요소이다. TV드라마와 원작소설 모두 남녀주인공의 애정문제가 전체 서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성균관>은 그 소재의 원천이 되었을 법한 여성영웅소설과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성영웅소설로 분류되는 작품의 여주인공들은 <성균관>의 김윤식과 달리 대개는 사랑을 모른다. 자의에서든 타의에서든 혼인은 하

2) 여주인공의 남장이 여성영웅소설의 필수요건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여성영웅소설로 분류되는 많은 작품에서 ‘남장여자’ 또는 ‘여화위남(女化爲男)’이 핵심 화소인 것은 분명하다. 여성영웅소설의 범주설정과 유형분류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정병설(2001: 211-214)을 참조할 것.

3) <성균관>에 군담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여성영웅소설과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성균관> 원작소설의 작가가 여주인공의 탁월한 능력을 문(文)의 영역에 한정했던 <설계전>을 특별히 현대적으로 각색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4) 박혜숙은 조선후기에 성행한 여성영웅소설의 가치를 자생적인 페미니스트적 사유의 등장이란 점에서 평가한다. 그에 따르면, 많은 여성영웅소설은 능력과 자질 면에서 여성이 남성과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고, 여성영웅의 남장 활동은 단순한 ‘남성선망’이 아니라 ‘동일성에 근거한 평등의 추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한편 <박씨전>과 <방한림전>에서는 ‘차이에 근거한 평등 추구’ 페미니즘의 단초를 찾았다(박혜숙 2006).

지만, 그것이 사랑의 ‘감정’에 의한 결과는 아니다. 여성의 능력이 남성보다 우월하게 설정되고 ‘자발적 헤어짐-비자발적 다시 만남’의 구도를 이루는 <홍계월전> 계열에서,⁵⁾ 여주인공들은 가문의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자아실현에 골몰할 뿐이고, 배우자 남성에 대한 감정은 오히려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남녀주인공의 능력이 대등하게 설정되고 ‘비자발적 헤어짐-자발적 다시 만남’의 구도를 이루는 <이대봉전> 계열에서조차도,⁶⁾ 남자주인공과의 재회와 혼인에 대한 여주인공의 자발성은 감정의 차원이라 보기 어렵다. 그것은 부모와 하늘이 맺어준 정혼(定婚)의 실현을 위한 적극성일 뿐이다. 대화나 행동에서 사랑의 감정을 포착하기 어려운 것은 남자주인공도 마찬가지다.

남성영웅이 작품의 실질적 주인공인 영웅소설의 경우, 혼사장에 극복의 과정이 남자주인공의 가문 회복과 함께 그려지는 경우가 많긴 하다. 그러나 <유충렬전>과 같은 전형적인 영웅소설에서는 물론이고, 애정 모티프가 들어 있는 <소대성전>에서도 남자주인공이 여주인공에게 첫눈에 반하는 묘사가 있긴 하지만 애정 문제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거나 본격화되지는 않는다. 영웅소설에서는 주인공의 가문 창달과 신분 상승의 과정이 주요한 관심사이고, 남녀의 애정은 부수적인 문제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주은 2008: 22-38). 여기서 남녀주인공의 혼인은 애정의 성취라기보다 남성영웅을 재건된 가문의 가장(家長)으로 자리매김하

5) 민찬은 남녀이합에 대한 여성영웅의 태도를 ‘비자발적 헤어짐-자발적 다시 만남’과 ‘자발적 헤어짐-비자발적 다시 만남’으로 대별하고, 이를 기준으로 여성영웅소설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여성영웅이 정혼자와의 재회와 혼인에 비자발적인 경우가 보다 여성중심적이라고 평가되었다(민찬 1986).

6) 민찬(1986)에 따르면, <이대봉전> 계열 중에 <백학선전> 유형은 남녀결합에서 애정이 강조되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백학선전>은 남녀주인공의 영웅성이 매우 위축되어 있어서 여성영웅소설보다는 애정소설로 취급되었던 작품이고, 이 유형으로 분류한 <옥루몽> 역시 여성영웅소설이라고 명명하기는 어렵다. 민찬이 이 유형을 여성영웅소설에 포함시킨 것은 ‘영웅의 일생’ 구조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백학선전> 유형에 관해서는 민찬(1986: 38-50)을 참조할 것.

는 통과의례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애정의 문제는 본래 영웅소설의 관심사가 아니었고 여성영웅 소설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는데, <하진양문록(河陳兩門錄)>(이하 <하진>)은 여성영웅소설이면서도 남녀주인공의 애정갈등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룬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작품이다. <하진>은 성역할 불평등에 대한 여주인공의 자각을 바탕으로 ‘여성우위에 의한 남녀대립’이 전개되는 <홍계월전> 계열에 속한다(민찬 1986: 62-71). 따라서 선행연구도 <하진>의 여성중심적 시각에 주목하면서(박명희 1990: 76-83) 여성영웅의 성격이나 성별정체성 등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활자본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이본간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작품에 대한 이해가 보다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⁷⁾

그러나 <하진>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남녀주인공의 애정서사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⁸⁾ 남녀주인공의 갈등은 전복된 남녀의 우열관계나 성(聖)·속(俗)의 대결⁹⁾ 또는 효(孝)·절(節) 논쟁¹⁰⁾과 같은 관념적 대립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많은 이본이 전하는 인기 있는 독서물이었던¹¹⁾ <하진>에서 짝사랑으로 번민하는 남자주인공과 한사코 그의 애정을 거부하는 여주인공 사이의 갈등은 여주인공의 영웅적 성취에 못지않게 이 소설의 주요한 흥미소였다고

7) <하진>에 관한 2002년 이전의 선행연구는 김민조(2002)를 참조할 수 있다. 2002년 이후의 논문으로는 이대형(2009), 최기숙(2009), 조광국(2010a) 등이 있다.

8) 김민조는 <하진>이 “남녀주인공의 애정장애 극복을 중심에 둔 작품”(김민조 2000: 45)이라고 평한바 있지만 정작 애정의 서사화 방식이나 그 의미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지는 않았다.

9) 서대석은 두 사람의 갈등을 “세속과 신성의 대결”이면서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윤리로 여성을 속박하려는 남성과, 이같은 남성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여성 사이의 갈등”이라고 요약하였다(서대석 1990: 1001).

10) 조광국(2010a)은 <하진>이 ‘효(孝)-절(節)’의 긴장관계와 ‘효(孝)-애정(愛情)’의 긴장관계를 통해 여성중심의 효담론을 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11) <하진>의 이본에 관해서는 박숙례(1999)와 이대형(2009) 참조.

추정된다. 또한 심리 묘사가 확대되어 있는 장편인 만큼, 애정갈등이 보다 본격적으로 형상화되었을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본고는 <하진>의 남자주인공 캐릭터와 그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애정서사에 주목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남자주인공을 단지 가부장적 권위의 상징으로 파악한 것은 근거가 적고,¹²⁾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속화(俗化)된 인물 형상이란 평가는(김민조 2000: 65-68) 일면 타당하지만 미진한 감이 있다. 차갑고 냉정한 여주인공의 기질과 애정기피증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한바 있거니와(이경하 2001), 이성적 여주인공과 짝을 이루는 감성 풍부한 남자주인공과 그가 펼치는 짝사랑의 서사가 갖는 의미를 천착해 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특히 <하진>의 애독자 가운데 하나였을 조선후기 상층신분 여성독자들의 입장에서, 이 소설이 다루는 애정의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¹³⁾

2. 사랑에 빠진 남성영웅 캐릭터

<하진>의 남자주인공 진세백은 여주인공의 시선에서 종종 ‘시속(時俗) 경박자(輕薄子)’로 타박 받는 위인이다. 개인필사본 <하진>에서는 남성권위의 희화화 또는 남성 폄하의 경향도 보인다고 평가된다.¹⁴⁾ 그러

12) 박명희는 “가부장제적 권위의 상징인 가장” 진세백이 “남성 된 권위와 가장으로서의 위엄을 내세우고 옥주의 뜻에 순응하지 않으며” “옥주에게 순종적이며 의존적 여성의 태도를 기대”한다고 그 성격을 요약했다(박명희 1990: 81-82).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작품 내에서 충분하지 않다. 남녀주인공이 갈등하는 구체적인 맥락을 소개한 채 남자주인공을 가부장적 권위와 억압의 상징으로 파악하는 것은 선형적 해석의 오류로 보인다.

13) 본고는 통속적 흥미가 확대된 활자본(김기동 1976)을 대상으로 한다. 원문 인용 시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모두 인용면수만 밝히기로 한다.

나 진세백은 사랑 때문에 번뇌하는 감성적인 인물이면서 동시에 영웅의 자질과 능력을 지닌 인물로 형상화된다.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영웅성’과 ‘감성’을 공유한 독특한 캐릭터가 바로 진세백이다.

2.1. 영웅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진세백은 단지 여성영웅의 탁월한 능력을 부각시키고 ‘장부의 녹록한 아내’ 되기를 거부하는 여성영웅의 심리적 고뇌를 부채질하는 일개 조연에 그치지 않는다. <하진>의 서술자는 진세백을 영웅호걸의 기상을 지닌 뛰어난 인물로 형상화하며, 신의를 중시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이면서도 한 여인에 대한 일편단심으로 괴로워하는 감성적 인물로 묘사하고, 그의 짝사랑을 서사의 핵심으로 채택하고 있다.

소설 전반부에서 ‘영웅의 일생’ 구조에 부합하게 유년기가 재현되는 인물은 하옥주가 아니라 오히려 진세백이다. 태몽을 비롯하여 신이한 탄생에 관한 세백의 일화는 있으나 옥주의 일화는 없다. 세백은 탁월한 총명함과 영웅의 기상을 타고났으며,¹⁵⁾ 조실부모(早失父母) 이후 전염병과 화재로 인해 가산마저 잃고 세상을 떠돌다 옥주의 아버지 하공(河公)의 눈에 띄어 하문(河門)으로 들어가 의탁하게 된다. 집안의 몰락으로 인한 어린 시절의 고난, 지인지감(知人之鑑)이 있는 조력자에 의한 양육 등 세백의 성장과정은 ‘영웅의 일생’ 공식구를 그대로 따른다.

세백이 영웅의 기상을 지녔음은 등장인물들의 평가를 통해서도 드러

14) 이대형은 세책필사본이나 활자본에 비하여 개인필사본에서 남성의 권위가 희화화되는 등 여성중심적 주제의식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보았다(이대형 2009: 31).

15) “삼스세 되미 총명이 비범하고 문장지덕이 일취월장하야 발호기유희며 출효기취라. 점점 자라미 인효품지지심과 쇠락엄일지풍이 일디영웅이오 당세용지라. 풍운 음양조화지리와 룡도삼약과 오싱팔진지법과 고리사어문스를 무불통지향니 룡네등지는 죽히 기록할 거시 못되더라.”(7쪽)

난다. 비범한 딸의 배필감을 찾고 있던 하공은, 세백이 비록 걸인 형색의 고아이지만 풍채와 골격, 재주와 덕이 자기 딸에게 어울리는 짝임을 확신한다(11쪽). 세백에 대하여 ‘비록 단아한 군자 아니나’라고 한 것은¹⁶⁾ 세백이 진중하고 점잖다기보다는 호방하고 외향적인 성격임을 뜻한다. 골격이 장대하여 먹는 양이 많다는 것 역시 남성영웅다운 외양을 강조한 표현이다(9쪽). 옥주는 남동생 백화가 가져온 세백의 시를 보고, 그가 웅장한 호걸의 기상과 출장입상(出將入相)할 영웅의 운명을 타고났으나 배필과의 연분이 순조롭지 못할 것임을 예견하기도 했다(22쪽).

일반적으로 <하진>은 여성영웅소설 가운데 ‘여성우위형’에 속한다고 간주되는데, 그렇게 단순화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물론 남장여자 하재옥이 미래를 예견하여 전쟁터에서 세백의 승리를 돕는다는든가, 분노한 세백이 완력으로 달려들 때 신출기묘한 선술(仙術)로써 제압한다든가 하는 사건은 재옥의 능력이 세백보다 한 수 위임을 증명한다. 그러나 <홍계월전>에서 보국이 평국(계월)에 비해 늘 열등한 존재로 비교되는 것과 달리,¹⁷⁾ <하진>에서 세백의 능력은 재옥과 비교되지 않고 그 자체로도 인정된다.

예를 들어, 하옥주의 자결 소식에 망연자실해 있던 세백은 마음을 다잡고 과거에 응시하여 문무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그의 뛰어난 자질과 능력은 좌중의 선망을 독차지했다. 천자가 친견할 때 세백은 ‘내딛는 걸음마다 용이 따르고 범이 엎드려 자는 듯’ 일대영웅(一代英傑)과 당세대인(當世大人)의 품모로 묘사된다(68쪽). 이후 강주자사와 소주자사가

16) “진량이 비록 단아한 군자 아니나 지식이 명달하고 위인이 정되 결속하니 시속 경박적 아니라 엇지 여식의 침익하며”(24쪽)

17) <홍계월전>에서는 남자주인공의 능력이 여주인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 모자란 것으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 평국과 보국이 도사에게 술법을 배울 때, 평국은 서너달 만에 무불통지하게 되지만 보국은 1년을 배워도 익히지 못한다. 나란히 과거에 응시했을 때는 평국이 장원을 하고 보국이 부장원을 한다. 서관과 서달의 침입이 있을 때는 평국이 대원수, 보국은 대사마 중군장이었다.

모반을 일으켰을 때 세백이 평동대원수(平東大元帥)로, 재옥이 평서대원수(平西大元帥)로 출정한다는 설정에서 보듯이, <하진>에서 남녀주인공의 능력은 반드시 우열을 다투는 비교대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¹⁸⁾

<하진>의 서술자는 남녀주인공의 능력을 비교하여 일방적인 여성우위를 강조하기보다는, 두 사람이 각기 뛰어난 능력을 지녔으며 타고난 기상과 지향이 다름에 주목하고 있다. 명선공주의 짝을 정하지 못해 고민하던 천자는 세백과 재옥 두 사람을 불러 시재(詩才)를 시험하는데, 이때 천자와 태자의 논평은 남녀주인공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 획일적으로 순위를 매길 수 없음을 보여준다.

천자와 태자의 논평에 따르면, 세백은 속계(俗界)의 영웅호걸이요 재옥은 선계(仙界)의 옥골선공이다.¹⁹⁾ 이 둘은 하나의 잣대로 우열을 논하기 어려운 ‘이질적 대등’의 관계라 말할 수 있다.²⁰⁾ ‘재옥이 신출귀몰한

18) 강주와 소주의 모반이 평정된 이후 서촉 서이왕과 서유왕이 쳐들어왔을 때는 재옥이 원수로, 세백이 부원수로 출정하게 된다. 이때는 하재옥이 높은 공을 세워 부친과 동생을 신원하기 위해 출전을 먼저 자원했고, 그러자 세백 역시 자원하여 부원수로 출전하게 된 것이다. 천자는 공주와의 혼사를 앞둔 세백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19) “(천자왈) 세백의 글은 웅침하고 광원하야 틱산과 디희의 근원니오, 직옥의 글은 도화신출하고 문치찬하야 오운니 칭기하고 청신하야 속귀를 거두어 빗치오미 빅승하니 … 진경은 오히려 발월하나 하경은 너모 탈속하야 씨글에 버셔나니 길도 적도다.”(149쪽) “(태자왈) 원간 직옥이 옥인군자나 너모 청명하고 남즈지풍이 빅물하니 그 수환의 히모를 듯하고 세백은 당당한 영웅호걸노 풍유발월함이 직옥의게 지나와 왕공부귀로 텃하디남이라. 직옥만 못할 이 업고 구익함이 업서 그 위인이 부마에 합당하니”(151쪽)

20) ‘속계’와 ‘선계’라는 단어에 이미 서술자의 가치판단이 담겨 있고, 그에 따르면 ‘선계’에 속한 하옥주가 더 우월한 존재가 아닌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계를 속계보다 가치 있게 평가하는 것이 과연 <하진> 서술자의 관점인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하진>에서 남녀주인공에 의해 대변되는 속계와 선계의 대립은 어느 한 쪽의 ‘우열’을 가르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곤란하다. 남녀간의 사랑에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가치관의 차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우열을 따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조화를 부려 세백의 완력을 물리쳤으니까 여성우위'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라고 생각한다. 후술하겠지만, 이들이 타고난 기질의 차이는 바로 가치관의 차이로 연결되며, 그것은 두 사람의 애정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2.2. 미생의 신의와 일편단심

진세백은 신의(信義)를 목숨보다 중시하는 사람이다. 하영화 형제의 죄로 인하여 하씨 집안에 멸문의 위기가 닥쳤을 때, 세백은 생전에 옥주가 연로한 부친의 안위(安慰)를 당부했던 말을 기억하고, 상소를 올려 하씨 집안과 자신의 과거사를 일일이 고한 후 하희지 부자(父子)의 사면을 청한다. 당시 세백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진세위란 이름으로 행세하고 있었던 만큼, 하씨 집안과의 인연을 밝힌다는 것은 곧 천자를 기망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로 인하여 자신의 신변에 닥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세백은 하공에게 입은 은혜와 옥주의 당부를 저버릴 수 없었다(80쪽).

신의를 중시하는 세백의 성격은 정혼녀인 옥주에 대한 일편단심(一片丹心)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세백은 옥주에게서 '효기(孝己)와 미생(尾生)의 류'라는 비난을 종종 받지만, 세백은 오히려 기꺼이 '효기와 미생 되기를 감심(甘心)'하겠다고 말한다(89쪽). 하재옥이 세백의 신의를 시험하여 요조숙녀를 얻어 옛일은 빨리 잊으라고 말했을 때, 세백은 재옥이 옥주인 줄 꿈에도 생각지 못하면서도 '내 공명(功名)을 버려도 이 아내는 버리지 못한다'고 대답한다(128쪽). 세백이 늘 타고 다니던 옥주의 옥패를 꺼내 보여주자, 재옥은 그의 일편단심에 감동하면서도 '구구함이 심하다'고 타박하는데, 세백은 상전벽해(桑田碧海)라도 자기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141-142쪽). 사랑하는 여자와의 약속을 지

키려다 물에 빠져 죽은 ‘미생지신(尾生之信)’은 너무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행동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세백은 오히려 미련할 정도로 약속을 지킨 미생을 본받겠다고 했다.

사랑하는 임에 대한 세백의 일편단심은 말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이미 옥주가 죽은 줄 알지만 그녀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 세백은 좋은 혼처를 모두 물리친다(130쪽). 세백과 재옥이 함께 수레를 타고 갈 때, 두 사람의 수려함에 반한 길가의 창기들이 굴을 던져 유혹하지만 세백은 일체 반응하지 않고 무심하다(145쪽). 한때의 풍정(風情)으로 인해 아름다운 정혼자를 영원히 잃었다는 자책 때문에, 세백은 다른 여색(女色)을 일체 돌아보지 않는다.

미생이 연인과의 약속을 지키려다 죽은 것처럼, 세백은 옥주가 황제의 늑혼을 피해 떠나버린 후 상사병이 들고, 거의 죽게 되었다가 옥주의 귀환으로 간신히 회생한다. 명선공주의 투기 문제가 일단락된 이후, 옥주가 제가지도(齊家之道)를 내세우며 양위할 뜻을 피력했을 때에도 세백은 ‘부부사정(夫婦私情)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라며 양위를 반대한다(464쪽). 세백은 그의 소원대로 이미 옥주와의 가약(佳約)을 이룬 후에도 옥주에 대한 마음을 변치 않았다.

세백의 일편단심은 어떠한 부귀공명과도 바꾸지 않을 사랑으로 표현된다. 그는 부마로 간택되었으나 이를 오히려 괴롭게 여겼고, 황제가 옥주와의 혼인을 허락하지 않자 ‘신의가 백 가지 행실의 근본’임을 내세워(233쪽) 천자에게 맞서다 옥에 갇히기도 한다. 옥에서 풀려난 뒤에도 천자의 처분이 그릇되었음을 역시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데, 그 기상이 너무나 매섭고 언사가 격절하여 ‘늠름한 풍채는 칼 아래 엎드릴 형상이요, 강개한 기상은 기름 가마에 들어갈 거동이라’고 했다(247쪽). 여인에 대한 짝사랑으로 상사병까지 들긴 하지만, 세백이 심사 유약한 사람은 결코 아니다. 진세백은 소신이 뚜렷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성격으로,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천자에게라도 당당히 맞서는 인물이다.

3. 주인공 애정서사의 양상

3.1. 사랑의 보편적 정서 형상화

<하진>은 짝사랑에 빠진 남자주인공을 통해, 사랑의 기쁨과 슬픔, 연인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절망과 분노 같은 사랑의 보편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남녀간의 사랑 따위에 도통 무관심하고 냉담한 여주인공 탓에 비록 반편의 사랑에 그치지만, <하진>에서 남녀주인공 사이에 지속되는 갈등의 핵심은 애정문제라 할 수 있다. 여주인공의 영웅적 행각이나 고뇌에만 주목한다면, <하진>의 소설적 재미 가운데 절반은 잃는 셈이다. 그만큼 이 소설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법한 행복과 불행의 다양한 감정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남자주인공의 감정선을 따라가며 이 점을 확인해 보자.

진세백이 남장여자 하재옥을 만나 벗으로 사귀던 시기는 그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 할 수 있다. 세백은 남장한 재옥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아름다운 외모와 탁월한 식견과 재능에 감동하여 단번에 자신의 지기(知己)로 삼고 친밀하게 대우한다(124-126쪽). 두 사람이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장난을 치는 모습은 사랑하는 남녀의 행복한 시간을 떠올리게 한다. 너무 매몰차고 냉담하다고 평가되는 여주인공이지만, 세백과 벗으로 사귀던 시절의 재옥은 때로 농담도 던지는 여유와 다정함을 보인다. 한번은 이미 술과 안주를 많이 먹고도 또 밥상의 그릇을 다 비우는 세백을 ‘뱃가죽만 광대하여 무용한 용부’라고 재옥이 놀리고, 세백은 부채로 재옥의 등을 치며 재옥에게 여자 옷을 입혀 정인(情人)으로 삼겠다고 농

을 한다.²¹⁾

남장여자 화소는 남자주인공이 여주인공의 남장 사실을 모른 채 여성에게나 느낄 법한 호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데,²²⁾ 세백이 재옥에게 느끼는 감정과 그를 대하는 태도에도 그런 측면이 있다.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음률을 타고 술을 마시며 즐기는데, 술에 취한 세백은 재옥의 손을 잡고 허리를 안으며 ‘하필 왜 너는 남자가 되어 나의 애를 끊는가’ 묻기도 하였다(141쪽). 재옥에 대한 세백의 미묘한 감정이나 두 사람이 함께하는 단란한 한때의 묘사는, 재옥의 정체를 알고 있는 <하진>의 독자들에게 흥미진진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안 보면 괴롭고 또 보고 싶은 그리움, 그런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 등은 연인 사이에 보편적인 감정이다. 세백 역시 재옥에 대해 그런 감정을 느끼고 행동한다. 낙양에서 올라오자마자 재옥의 집에 들렀을 때, 세백은 승평곡(昇平曲)을 연주하는 재옥의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 재옥에게 들켜 ‘몰래 벗을 엿보는 경박지인(輕薄之人)’이라 핀잔을 듣고는 자신의 그립고 서운한 마음을 토로한바 있다(139쪽). 공주와의 혼사가 다가오자 심란하여 세백은 병이 나는데, 이때 재옥이 병문안을 오지 않는다고 “스모지심이 울결허야” 역시 괴로워

21) “시랑이 쇼왓, 그디는 장군의 괴롬이어니와 다만 빅가족만 광디허야 너허 무용한 용부라. 상셔 디쇼호고 왓, 네 감히 밥을 육허려 호도다. 너 천병만마로 텃하에 횡횡허야 널로써 군중의셔 참모를 삼아 빅의셔싱이라 흐리라. 시랑이 답쇼왓, 너 또 빅모황월로 동셔에 정별할 적 압선 선봉으로 호이여 나의 디하에 쫓겨 흐리라. 상셔 금선으로 등을 쳐 왓, 이놈이 당돌허야 날 육하기를 심이 하느다. 너허 거동이 당당이미인이 널노써 남의를 벗기고 금차홍군으로 나의 회중정인을 삼아 슈유불이 흐리라.”(144-145쪽)

22) TV드라마 <성균관>에서 남자주인공 이선준은 김윤식이 남자라고 여기면서도 그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던 모범생 이선준은 그로 인해 몹시 괴로워하고, 다른 여인과의 혼사를 서두르며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노력한다. 소설 <성균관>에서는 이선준의 그런 심리적 갈등이 초반부터 훨씬 비중 있게 그려진다.

했다(161쪽).

그리움이 너무 깊으면 병이 되는 법. 천자의 늑흔을 피해 옥주가 속세를 떠나버린 그 해 겨울, 세백은 옥주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음의 병을 얻는다. 앓으나 누우나 옥주 생각에 안정하지 못하고 음식 맛도 잃고 불면증에 시달리며(286쪽), 옥주의 모습을 족자에 직접 그려놓고 자주 꺼내 보기도 한다. 세백의 병이 상사로 인한 것임을 알고, 천자가 그를 위해 미녀와 명창을 보내 위로하지만 세백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한겨울인데도 추운 줄 모르고 문을 다 열어젖히고 답답해하는 형상은 미친 사람에 방불하다(302쪽).

이별을 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추억이 고통스럽지만 여기서 헤어날 수도 없다. 상사병이 들어 점점 여위어가던 세백은 어느 날 하공에게, 자기가 죽으면 옛날 재옥과 함께 노닐던 물가의 반송(盤松) 아래 묻어달라고 당부한다. 그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두 사람이 자주 구경했었는데, 다른 유생들과 함께 하기를 청해도 재옥이 한사코 사양하고 오직 자기하고만 갔었다면서, 시냇가에서 맑은 바람을 쏘이며 시를 창화(唱和)하던 일을 잊을 수 없으니, 죽어 그곳에 묻혀 그 경치나 보게 해 달라 했다. 재옥과 지심지기(知心知己)하는 벗으로서 사생(死生)을 함께 하기로 기약했건만 그 일도 일장춘몽(一場春夢)일 뿐, 이제 다시 그 때로 돌아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으니 슬프다고 했다(302-303쪽).

세백이 옥주에게서 느꼈던 배신감, 원망, 분노 역시 사랑에서 기인한 감정들이다. 옥주가 세백과의 부부인연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속세로 다시 돌아와 거의 숨이 넘어가는 세백을 구하였을 때, 그토록 그리던 입을 다시 대면한 세백의 첫 반응은 분노였다. 옥주는 생혈(生血)을 내어 기껏 세백을 살려놓고는 또 다시 그를 ‘필부 경박자’라고 나무라는 일장연설을 하는데, 화가 난 세백은 칼을 빼어 들고 옥주를 향해 ‘실신배약(失信背約)한 창녀’라 욕하고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며 분노에 치를 떤다. 한

차례 심한 언쟁 뒤에 조금 진정이 된 세백은 ‘가는 곳이나 알려주지, 기약이나 두고 가지’ 하며 원망을 토로한다.²³⁾

그렇다면 세백에 대한 옥주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세백에 대해 옥주는 무엇보다 그의 신의와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남장 여자 재옥으로서 세백을 처음 만나 자기 집안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옥주는 부친과 남동생이 멸문지화 가운데 목숨을 부지한 것이 세백의 구환임을 알게 된다. 또한 자신이 죽은 줄 알고 철마다 제를 올린다는 말을 듣고 그의 ‘고급에 없는 신의’에 고마워한다(127쪽). 늑흔을 피해 달아났다가 속세로 돌아와 세백의 목숨을 구한 것도 그에게 입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고 했다(323쪽).

옥주가 세백의 진심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천자의 늑흔으로 속세를 떠날 때 옥주가 세백에게 남긴 편지에는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옥주는 세백이 의리로나 정으로나 형제와 골육 같은 사이라 하고, 자신에 대한 세백의 마음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세백의 신의와 진정(眞情)이 너무나 단단하고 깊어서 목석이라도 감동할 것이라 하고, 자신은 사세가 난처해 떠나는 것이지 그를 저버림이 아니라고 했다(248쪽). 그리고 부디 공주와 혼인하여 효를 이루고 진씨 집안을 일으키라는 진심 어린 당부를 두었다. 이 편지에서 세백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심사도 드러나지 않는다.

상사병으로 거의 죽게 된 세백이 그녀를 원망하여 피를 토하는 모습을 보고, 차갑기만 한 듯 보였던 옥주 역시 불쌍한 마음에 자책하기도 한다. 바다도 삼킬 것 같은 기운을 가진 사람이, 산도 뒤집을 것 같은 용맹을 지닌 장부가, 자기로 인해 깊은 병을 얻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후회 막급’이라 했다.²⁴⁾

23) “늘을 속이고 다니는 줄 생각하면 분흔니 슈화라도 피치 아니듯 시분지라. 형세 쾌할 밧 업스나 거쥬거쳐와 알게 호고 후회나 두엇스면 님 그디도록 락담하며 밧야 호라. 씩이 스별노 디하후회를 두엇스니 엇지 박절치 아니리오.”(323쪽)

그러나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해도 그것이 사랑은 아니다. 옥주는 자신이 다시 돌아온 이유가 연로한 부친을 살린 은혜를 갚기 위함이라고 못 박고, 여자 때문에 일생을 망치려 드는 세백을 ‘미생의 류’요 ‘필부 경박자’라고 비난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남의 웃음거리가 되지 말라고 차갑게 말한다(322쪽). 머리로는 고맙게 여기지만 가슴으로 진정 사랑할 수는 없었던 것이 세백에 대한 옥주의 마음이다.

3.2. 주인공 애정갈등의 원인

<하진>에서 남녀주인공 사이에 지속되는 갈등의 핵심은 애정문제라 할 수 있다. 작품 초반부에서는 옥주와 세백의 결연이 교주의 모략이라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 방해 받는 전형적인 혼사장애의 형태를 띠지만, 옥주에 대한 세백의 일편단심이 본격적으로 그려지는 중반부 이후 결말에 이르기까지 이 소설의 핵심 서사는 애정문제를 둘러싼 남녀주인공의 내적 갈등에 의한 것이다. 한결같이 세백은 사랑을 갈구하고 옥주는 세백의 마음을 거부하는데,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자.

우선 남녀주인공은 타고난 기질이 매우 다르다. 진세백과 하옥주는 ‘표현적 남성-도구적 여성’ 커플의 전형으로서, 이른바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명명되는 인간의 보편적 기질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 캐릭터로 주목된다.²⁵⁾ 너무 차갑고 맑은 기질에 이성적 판단이 감정보다 늘

24) “언파에 심화 발하야 금금을 헛치고 이러나 다시 피를 토하고 괴운니 막혀 상에 짓구러지거늘, 하시 그 경식을 보고 감동쳐창하고 뒤경쳐악하야 급히 문을 열고 드러가 왕을 바로 누이고 수족을 만져보니 … 하시 이를 목견훤이 이 다 즈기 빌미라. 제 본던 구구장부로 당당헌 괴운니 바다흠 습길 듯하고 룡호용땡이 뵈흠 뒤칠 듯헌더니 일병이 침면하야 츠경에 이르렀슴을 후회막급이라 참년즈상하야 옥누를 흘이더라.”(320쪽)

25) 도구성과 표현성은 글레논이 남녀의 일반적 차이를 설명할 때 사용한 용어이다. 도구성의 특징으로 지적한 애정중립성, 자아지향성, 보편주의, 과업지향, 합리성,

앞서는 옥주에게, 사랑의 열병을 앓을 만큼 감성적인 세백은 전혀 이상형일 수 없었다. 사랑에 목매는 세백과 정반대로, 옥주의 애정기피는 때로 처녀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결벽증처럼 보이기도 한다(이경하 2001: 237). 세백은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솔직하고 종종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지만, 옥주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충, 효, 예와 같은 도덕률로 대변되는 공적 가치들을 추구하며 그 기준에 따라 냉철하게 행동한다.

세백의 감성적이고 충동적인 행동과 옥주의 지극히 이성적인 사리 판단은 때로 심각한 언쟁과 힘의 대결을 유발하기도 한다. 전쟁터에서 남장의 비밀이 탄로 난 옥주가 혼인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열거하고, 세백은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음을 반박하며, 두 사람은 심한 언쟁을 벌였다. 말을 할수록 두 사람의 가치관과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세상물욕과 부부은의(夫婦恩義)’를 뜯구름같이 여기는 옥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세백이 절망과 분노에 휩싸여 그녀에게 달려든다. 재옥은 도술로써 위기를 모면하고, 다른 장수들을 불러 번을 서게 하여 세백이 더 이상 허튼 수작을 벌이지 못하도록 경계한다.

애간장이 타는 세백은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있다가 재옥에게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고백하는데, “나는 의리도 모르고 사리도 모르고” “차라 리 빨리 죽어서 그대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는 그의 말에 재옥은 어이가 없다. 재옥은 그 ‘졸렬한’ 마음을 한심해하며, “그대는 도의(道義)를 잡아 비레를 이루지 말라. 신의로써 나를 생각하면 돌아가 군명(君命)을 얻어 그대 뜻을 좇으려니와, 만일 구구한 사정(私情)을 중히 여긴다면 맹

논리성, 감정의 통제 등은 하옥주 캐릭터에 부합한다. 반면 표현성의 특징으로 지적한 애정지향성은 진세백 캐릭터의 가장 두드러진 점이다. 이경하는 이른바 ‘남성성’과 ‘여성성’이란 단어가 남녀불문한 인간 보편의 기질을 특정 성에게만 귀속하는 통념을 재생산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남성성/여성성’ 대신 ‘도구성/표현성’이란 용어를 사용해 하옥주의 성격을 분석한바 있다. 도구성과 표현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경하(2001: 229-232)를 참조할 것.

세코 그대 뜻을 따르지 않겠다.”고 잘라 말한다(196-203쪽).

기질의 차이는 가치관의 차이로도 연결된다. 세백은 사랑을 위해서라면 부귀와 공명 모두를 버릴 수 있지만, 옥주는 ‘부부간의 사사로운 정’을 허망하다 여기고 상사병이 든 세백을 한심하게 생각한다. 옥주는 남녀간의 사랑이 부운(浮雲)과 같다 여기거니와, 한 여인에 대한 사랑에 골몰하는 세백의 태도는 옥주의 가치관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대단히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한다. 세백이 천서(天書) 배우기를 옥주에게 청했을 때, 옥주는 남녀간의 정에 연연해한다면 진정한 공부를 할 수 없는데 세백은 ‘풍류호걸로 주색을 즐기니’ 가르칠 수 없다고 했다(413쪽). 교주와의 사통을 뉘우치고 이후로는 다른 여색을 돌아보지 않는 세백에게 ‘주색을 즐긴다’는 평은 타당하지 않으나, 세백이 애욕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진 두 사람은 모두 신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일치하지만, 남녀간의 예(禮)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세백은 상황에 따라 권도(權道)를 인정하고 소소한 엄치를 중시하지 않지만, 옥주는 비례와 무례를 혐오하고 세상의 이목을 중시한다. 하공의 표현을 빌면, 옥주는 “비례는 원수로 알아 일동일정(一動一靜)을 예 아닌 즉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372쪽). 예가 인간관계의 질서를 구현하는 방법이라면, 권도는 경우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질서를 구현하는 다른 길이다. 옥주는 이미 세상이 인정한 길만을 가려 하고, 세백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다른 길을 선택한다. 두 사람은 첫 대면에서부터 예와 권도 사이에서 갈등하고,²⁶⁾ 남녀 사이의 예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두고 이후에도 크고

26) 교주의 계략에 빠져 몸을 피해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 세백은 옥주에게 자신과 함께 떠나자고 말하며 그것이 권도라 했고, 옥주는 타문남녀(他門男女)가 한밤중에 서로 만나는 것도 비례라고 맞섰다. 세백이 함께 달아나자고 주장한 이유는 남겨진 옥주 역시 교주 남매의 흥계로 위협에 처할 것이 분명하고, 이미 혼서와 신물을 교환하였으니 부부와 같다 여겼기 때문이었다. 당연히 옥주는 거절했고, 세백이 떠난 이후 수심에 몸을 던졌다.

작은 말다툼을 반복한다.

옥주는 천정지연(天定之緣)을 거부하지 못하고²⁷⁾ 세백과 혼인하긴 하지만 진심으로 세백을 사랑할 수는 없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앞서 보았듯 세백이 자주 무례를 저지른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남녀 사이의 예를 주장하는 옥주의 논리도 때로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혼례를 앞두고 세백이 옥주를 만나러 갔을 때, 옥주는 성혼(成婚) 이전에 남녀가 만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 자신은 이미 여복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남장을 했던 시절과는 다르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세백의 입장에서 그렇게 새삼 내외하는 옥주의 태도가 오히려 ‘가소롭다’.²⁸⁾ 조정과 전쟁터의 수많은 남정네들이 이미 그녀의 얼굴을 보았는데, 혼례를 앞둔 정혼자에게 새삼 내외를 하는 옥주의 태도가 세백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남장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억지로 참았음을 감안한다 해도, 남장 시절에 재옥이 세백을 대한 태도는 ‘비례를 원수로 아는’ 옥주의 지론에서 벗어나 있다. 재옥은 세백이 자신의 손을 잡고 허리에 손을 두르는 것도 허용하였고, 두 사람은 종종 베개를 나란히 하고 누워서 밤새워 이야기하고 술을 마시기도 했다. 재옥이 다른 남성과는 술잔을 주고받지

27) 곤륜산 진원법선관에서 옥주의 스승이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전생에 세백과 옥주는 선계의 문곡선과 미화선이었다. 두 신선이 바둑을 두다가 ‘인간 세상에 하강하여 부부 되어 살면 좋겠다’는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상제가 진노하여 그들을 인간세상으로 보내어 부부의 인연을 맺되 온갖 고난을 겪게 만든 것이다. 또한 그들이 서로 남자가 되겠다고 다투는 바람에 바둑을 두어 남녀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했다(38-39쪽).

28) “하심이 드러가 저저를 보고 진왕의 말노씨 전하니 지군알, 불가하다 님 남에 변복 하야 전일과 절원하니, 이제 엇지 무단니 보리오. 구구히 비례를 구치 말나 흐라. 하심이 나아가 이디로 전하니 왕이 소왓, 이제야 어디를 갔다가 즐런니 구리에 드러안즈 눈섭을 그리며 구수의 턱을 짓거니와 하지옥에 얼굴을 도정에 누 못 보왔스리요. 이제 놀들 님의하야도 만조를 병넙하야 반열을 일올제논 감히 구수라 못할 거시오, 룩군디장이 되야 천병만마를 거나려 호진에 출몰할 제 동서이적과 구주장 줄이 다 그 얼굴을 익이 아나니, 이제 놀들 슈으미 도로혀 가쇼롭도다.”(368쪽)

않으면서도 세백의 친밀함을 허용했던 것은 그가 정혼자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뒤로는 세백을 곁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냉담하게 군다. 재옥 시절에는 권도를 인정했는데, 남북을 벗은 옥주는 다시 경직된 원칙주의자로 돌아간 것이다.

기질과 가치관이 전혀 상반된 남녀는 상대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고, 심한 언쟁은 욕설을 동반하기도 한다. 세백의 무례함에 화가 난 옥주는 싸늘한 얼굴로 “인면수심(人面獸心)이요 근어천류(近於賤流)”라고 그를 비난하는가 하면, 세백은 그녀를 향해 “모질고 사납기가 시호(豺虎)같다”고도 했다(325-326쪽). 이처럼 지속되는 갈등의 원인은 남녀 사이의 애정과 예에 관한 두 사람의 생각이 크게 다르다는 데 있다. 때문에 이들의 가치관 차이를 ‘세속과 신성의 대결’이라고만 하기는 석연치 않다.

옥주가 끊임없이 선계를 그리워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세속적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존재”(서대석 1990: 999)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옥주는 남녀간의 사랑이 뜬구름과 같다고 부정하지만 연로한 부친에 대한 걱정은 놓지 못했고, 효라는 명분 하에 하문(河門)의 회복을 위해 나라에 공을 세우고자 노력했으며, 순결을 증명하기 위해 앵혈 문헌 살을 도려내면서도 안색 하나 변하지 않을 만큼 자신의 명예를 중시한다. 옥주가 철저하게 지키고자 노력했던 효, 충, 절, 예와 같은 도덕률은 사실상 속세의 질서를 지탱하는 가장 현실적인 원리들이다. 명선공주의 광기나 양혜옥의 침묵과 달리, 옥주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논리적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여성이며, 그 언어란 바로 지배질서의 공적 가치들로 점철된 ‘지배자의 언어’이다(이경하 2001: 241-245). 옥주가 일관되게 기피한 것은 남녀간의 애정이지 ‘모든’ 세속적 가치는 아니다.

세백에 대해 ‘속화(俗化)된 인물’이란 평가도(김민조 2000: 65)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속화’란 애욕을 긍정하는 인물이란 뜻이지, 부귀공명과 같은 다른 세속적 가치에 대한 추구를 뜻하지

않는다. 세백이 부귀공명이나 목숨보다 중시했던 세속적 가치란 남녀간의 애정, 특히 정혼자와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다. 그 점이 옥주와 가장 크게 달랐다.

4. 여성독자의 애정욕망과 자기검열

진세백의 행적을 기준으로 보면, <하진>은 영웅호걸의 기상을 타고난 호남이며 자기감정에 솔직한 남자주인공이 여주인공에 대한 일편단심으로 인해 번뇌하는 이야기다. 진세백의 짝사랑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애정갈등은 <하진>에서 매우 중요한 서사축으로, 특히 여성독자들의 관심을 끌 법한 흥미로운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가부장적 질서를 뒤집는 여주인공의 영웅적인 행적을 통해 느끼는 쾌감과 별도로, 사랑에 목매는 영웅호걸의 일편단심과 콧대 높은 여주인공 사이의 밀고 당기기를 지켜보는 것 또한 조선후기의 여성독자들이 이 소설 읽기에서 얻음직한 큰 재미였다고 생각된다.²⁹⁾

남녀 사이의 애정문제는 고금을 막론하고 소설의 가장 중요한 소재라 할 수 있고, 애정문제를 주로 다루는 멜로드라마는 특히 여성향유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얼핏 보기에 조선시대 소설은 그러한 일반적인 공식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향유층의 성별을 불문하고 애정을 성적(性的) 코드로 접근한 예는 동시대의 중국이

29) 이 장에서 <하진>이 다루는 애정의 문제를 상층여성의 애정욕망과 연결시켜 논의하는 것은 조선후기 상층신분의 여성들이 <하진>의 주요한 독자층 가운데 하나였다는 전제에 근거한다. 그러나 그 전제가 ‘<하진>의 독자는 상층여성’이란 배타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 소설을 즐겨 읽었을 법한 상층신분의 여성독자들에게 세백과 옥주의 애정갈등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추론해 보는 것은 곧 상층여성들에게 <하진>이 재미있는 소설로 애독될 수 있었던 근거를 밝히는 작업이기도 하다.

나 일본과 비교해서 현격하게 적거니와, 애정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낭만적·사실적 전기소설은 대개 상층남성의 욕망을 반영한 것으로 간주되며(박일용 1993), 주요 독자층이 여성인 한글 장편소설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는 정혼한 남녀의 혼사장애나 혼인 이후 처첩갈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상층여성들이 애독했던 한글소설 역시 애정문제를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도 꾸준히 다루어 왔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구운몽>의 독자가 성진의 깨달음보다는 양소유의 화려한 여성편력에 보다 주목할 때, <구운몽>은 한 편의 애정소설로 읽히기에 부족함이 없다. 여성등장인물들에게 ‘여색에 굶주린 귀신’[色中餓鬼]으로 놀림 받을 만큼 양소유를 움직이는 중요한 추동력은 애정욕망이며, 그의 삶은 바로 여덟 여성과의 애정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다. 양소유는 중세 상층남성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그의 애정편력은 바로 상층남성들의 욕망을 대변한다. 그런데 여성독자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양소유는 문무를 겸비한 만능 재주꾼에, 호탕하고 여유로우면서도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다정다감하고 멋진 남자일 수 있다. ‘조화로운 일부다처 가정’이라는 환상을 전제로 말이다.³⁰⁾

<구운몽>은 꿈이라는 서사적 장치를 이용하긴 하지만 주인공의 애정서사를 중요하게 다루었는데, 이후 소설들에서는 애정욕망을 추구하는 인물들의 비중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 일반적이다. <소현성록>의 경우 중세적 이념을 준수하는 인물 소경과 정반대로, 그의 아들 소운성과 소운명은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연에 적극적이면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혼인에 대해서는 저항하기도 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렇다면 이들 작품과 <하진>의 차이는 무엇일까? 소운성과 소운명의 애정서사는 <소현성록> 연작의 일부분에 불과한데, <하진>에서 남자주인공 진세백의 애정서사는 소설 전체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구

30) 양소유의 애정성취욕망과 그 성격에 관한 분석은 정길수(2010: 39-59)를 참조할 것.

운몽>은 남자 주인공 1인과 여러 여성들과의 관계를 남자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편력구조로 전개하지만, <하진>은 여주인공에게 일편단심을 바치는 남자주인공의 짝사랑이 애정서사의 중심이다. <하진>은 양소유와 같은 멋진 남성이, 소운성 형제처럼 한 여성에게 사랑을 바치는 이야기이다. <하진>의 남자주인공 진세백은 모든 마음을 바쳐 한 여성만 사랑하고 그 여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조선후기 여성들의 애정욕망이 투영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진세백은 옥주만을 사랑할 뿐 아니라, 다른 여성영웅소설의 남자주인공들과 달리, 가부장적 권위로 옥주의 뛰어난 능력을 무시하거나 시샘하지도 않는다. 전쟁터에서 남장여자 재옥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 옥주가 세백의 청혼을 거절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규중 여자의 몸으로 바깥 세상에서 행세하여 이미 ‘부도(婦道)에 어그러졌다’는 것, 자신은 ‘구구한 아녀자의 도’를 참아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196쪽). 이에 대해 세백은 일반적인 부덕(婦德)의 잣대를 ‘여중영웅(女中英雄)’인 옥주에게 강요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197쪽). 이후에 옥주가 총재직을 맡고 활약할 때도 세백이 이에 대해 불평하는 일은 없었다.³¹⁾ 상사병이 들었을 때 세백이 그린 족자도 하옥주와 하재옥 두 가지 형상이었는데(286쪽), 철갑투구를 입고 칼을 찬 재옥의 형상을 그렸다는 것은 세백이 남성 성별화된 세계에서의 재옥의 활약을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재옥의 정체성과 옥주의 정체성이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소현성록>에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표현은 없지만 성적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간접적이고 암시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는 분석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에 대한 언술을 최대한 절제하면서도 ‘옛보기’나

31) 하충재의 활동영역이 궁중내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지만, 세백은 기본적으로 ‘구구한 아녀자의 도’를 옥주에게 강요할 생각이 없는 남성으로 그려진다.

‘스치기’를 통해 우회적으로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독자의 성적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것이다(전성운 2005: 66-74). 이러한 분석은 <소현성록>뿐 아니라 여타의 많은 장편소설들에 적용될 수 있고, <하진>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세백과 재옥의 단란한 한때는 재옥의 정체를 알고 있는 여성독자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이며,³²⁾ 세백과 옥주의 반복되는 동침갈등 역시 여성독자들의 성적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세백과 옥주의 동침갈등은 독자에게 남녀 사이의 예와 사랑의 딜레마를 던진다. 중세 유교질서에서 이상적인 부부관계를 가리킬 때 ‘부부가 서로를 손님처럼 대한다’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 그만큼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고 공경하여 친압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천(伊川)과 명도(明道)의 어머니 후부인이 그러했고,³³⁾ 복송 때 학자 여희철(呂希哲)은 아내를 대할 때 젊은 시절 잠자리에서도 웃고 장난치며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고 칭송된다.³⁴⁾ 하옥주는 그러한 선현의 가르침을 철저히 실천하려 하는데, 진세백은 부부 사이가 손님 같아서야 되겠는가 묻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진>은 진세백의 언행을 통해 바람직한 부부 사이의 조건으로 공경과 예의에 더하여 애정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것은

32) 여성영웅소설의 핵심 중 하나인 ‘남장여자’ 화소는 현대의 대중문화에서도 최근 인기 있는 아이템이다. 예를 들어, TV드라마 <바람의 화원>(2008)과 영화 <미인도>(2008)는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이 사실은 여자였다’는 가정을 근간으로 하였고, TV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2007)은 현대의 커피전문점을 배경으로 남장한 여주인공과, 그녀가 남자라고 여기면서도 사랑을 고백한 남자주인공 사이의 달콤한 멜로를 그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조선은 애당초 상층여성의 자유로운 연애를 상상하기 어려운 사회였던 만큼, 여주인공의 남장은 남녀주인공의 애정서사를 위한 유용한 장치로 이용될 수 있었다.

33) 『내훈(內訓)』 「부부장(夫婦章)」, “程太中夫人侯氏 | 事舅姑호되 以孝謹호로 稱호며 與太中으로 相待如賓客호되니…”

34) 『내훈』 「부부장」, “呂榮公夫人仙源이 嘗言호되 與侍講으로 爲夫婦호야 相處六十年에 未嘗一日도 有面赤호며 自少로 至老히 雖衽席之上이라도 未嘗戲笑호라 호니 榮陽公이 處身이 如此호되 而每歎范內翰호야 以爲不可及이라 호더라.”

조선시대 상층신분의 부부관계에서 실제로 제기될 법한 문제이다.

조선후기 사회가 성에 대한 표현을 금기시하는 분위기였고 특히 상층 여성은 성적으로 억압된 집단이었다.³⁵⁾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동침갈등은 실제로 삶의 문제였을 수 있다. 중세 유교사회에서 여성은 기녀가 아닌 한 애정에 대해 능동적인 주체일 수 없고, 특히 상층여성도 말이나 글로써 애정에 관해 언급하는 것도 금기시되었다. 그런 사회에서 상층여성의 애정욕망 또는 성적 욕망은 그 대상이 배우자라 해도 억압될 수 있는 것이다.

한글 장편소설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성인물의 애정욕망이 긍정되는 반면 여성인물의 애정욕망은 철저하게 부정된다. 예를 들어 <소현성록> 연작에서 애정을 추구하는 남성인물에 대한 시선은 긍정적인 데 반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애정을 추구하는 여성인물은 대개 징치되었다(장시광 2005: 72). <벽허담관제언록> 역시 애욕을 추구하는 첩과 부덕을 갖춘 정실의 극단적인 대립 구도 하에서 ‘정실 선호의 일부일처의식’과 ‘정실의 애욕억압의식’을 구현하고 있다(조광국 2010b). <조생원전> 같은 애정 모티프가 중요한 통속적 가정소설에서도 모든 갈등의 원인을 부도덕한 첩의 탓으로 돌리고 선한 본처는 잃어버렸던 애정을 회복하는 구도를 취한다(김주은 2008: 53).

여성영웅소설에서도 여주인공은 대단히 적극적·능동적 주체이지만 애정에 관한 한 수동적이고 비주체적으로 형상화된다. ‘정실의 애욕억압의식’은 여성영웅에게도 적용되는바, 이는 상층여성에게 강제된 엄격한 성윤리의 효과일 수 있다. 심하게는 하옥주와 같이 순결에 대한 강박증이나 결벽증으로 보일 만큼 애정을 기피하는 여성 캐릭터가 창조되는데(이경하 2001: 237), 이 또한 <하진>의 여성독자층이 공유하는 성과 애

35) 정병설은 조선후기의 성은 전체적으로 억압되지 않았다는 점, 다만 신분질서의 유지 위해 상층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이 엄격했을 뿐이라는 점을 논변한바 있다(정병설 2010: 195).

정에 대한 억압된 의식의 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여성의 욕망에 대한 억압이 한글소설 속에서 여성인물의 애정 추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진세백-하옥주와 같은 커플 캐릭터가 충분히 해명되지는 않는다. 조선후기 상층여성들에게 윤리적·제도적으로 아무리 성적 억압이 심했다 해도, 그들에게 성적 욕망 또는 애정욕망 자체가 완전히 거세되었다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억눌린 욕망은 사라지기보다는 은폐된 채 다른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고, 조선후기 상층여성의 은폐된 애정욕망이 문학적으로 발현된 것이 <하진>과 같은 소설이라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하진>은 진세백-하옥주와 같이 애정에 대한 극단적으로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남녀주인공을 통해, 상층여성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애정욕망과 윤리규범 사이의 치열한 갈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온 마음을 바쳐 한 여성을 사랑하는 남주인공이 상층여성독자의 은폐된 욕망을 대변한다면, 애정욕망을 극도로 부정하는 여주인공은 조선후기 사회가 그들에게 강요한 억압적인 성윤리를 대변한다. 즉 진세백-하옥주 커플의 갈등은 상층여성독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애정욕망과 성윤리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언술은 ‘말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와 언술이 생산되는 시장구조에 고유한 검열간의 타협의 산물”(부르디외 1995:68)이라는 말이 있다.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주인공들이 가부장적 지배질서와 타협하는 일반적인 결말구조를 향유층과 지배이념 사이의 공모와 타협의 산물로 해석한 바 있는데(이경하 2004: 121), <하진>의 애정갈등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진>의 작자는 상층여성의 애정문제를 다루되 당대의 보편적 인식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언의 수위를 조절해야 했을 것이고, 여성독자 역시 그들의 억압된 욕망을 진세백의 열렬한 사랑에 투사하는 한편, 하옥주의 얼음 같은 심장으로 무의식적 자기검열을 수행

했을 터이다. <하진>에서 표면적으로 성윤리가 애정욕망을 제압한 듯 보이는 것은 상층여성을 중심으로 한 향유층의 자기검열의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윤리와 욕망의 승패 여부가 아니라, 이 소설이 남자주인공의 열렬한 사랑 이야기를 통해 여성독자의 은폐된 욕망을 한껏 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5. 맺음말

이 논문은 <하진>에서 남자주인공의 짝사랑이 여주인공의 영웅적 행적에 못지않게 흥미로운 소재인 동시에 전체 서사의 핵심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독특한 남자주인공 캐릭터와 남녀주인공이 펼치는 애정갈등의 의미를 분석한 것이다. 특히 <하진>의 주요 독자층인 상층여성독자의 은폐된 욕망이란 측면에서 적극적인 의미 해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2장과 3장에서는 감성적 남자주인공의 짝사랑과 이성적 여주인공의 애정기피증이 첨예하게 부딪히며 서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갈등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여성영웅소설에서 남녀갈등은 일반적으로 애정갈등이라기보다 권력갈등의 성격을 띠는데, <하진>에서 남녀주인공의 갈등은 극단적으로 다른 기질에서 연유한 가치관의 차이, 특히 남녀 사이의 애정에 대한 상반된 태도에서 비롯된다. 남자주인공은 사랑을 위해서라면 부귀와 명예는 물론 목숨까지도 버릴 태세인데, 여주인공은 사랑으로 변뇌하는 남자주인공을 줄렬하고 어리석다 비웃는다. 그러한 남자주인공의 짝사랑 서사를 통해, 기쁨과 슬픔, 그리움과 원망, 절망과 분노 등 사랑에서 비롯된 인간 보편의 감정을 본격적으로 담아낸 것은 <하진>이 이룩한 중요한 소설적 성취이다.

4장에서는 <하진>이 상층여성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애정욕망과

윤리규범 사이의 치열한 갈등을 형상화한 소설이란 점을 논의하였다. 사랑에 목매는 남자주인공이 여성독자의 욕망을 대변한다면, 한사코 그의 사랑을 거부하는 여주인공은 상층여성에게 강요된 엄격한 성윤리와 규범적 세계를 대변한다. 요컨대 <하진>의 여성독자들은 사랑에 빠진 남자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함으로써 억눌린 욕망을 대리 해소하는 한편, 냉철한 이성으로 무장하고 윤리규범만을 말하는 여주인공을 통해 자기검열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조선후기는 상층여성의 애정욕망에 대한 표현이 금기시된 사회였지만, 작자와 독자들이 표현의 수위를 스스로 조절하면서 욕망의 발현과 소설의 재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작품이 바로 <하진>인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동 편(1976), 『하진양문록』, 활자본고소설전집 제11권, 아세아문화사.
- 김민조(2000), 「<하진양문론>의 창작방식과 소설사적 위상」, 고대 석사학위 논문.
- 김민조(2002), 「<하진양문록> 연구사」, 우쾌제 외, 『고소설연구사』, 월인, 1257-1280.
- 김주은(2008), 「고소설 애정 모티프의 구현 양상과 의미」, 한국교대 석사학위 논문.
- 민찬(1986),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박명희(1990), 「고소설의 여성중심적 시각 연구」, 이대 박사학위논문.
- 박숙례(1999), 「<하진양문록> 연구 - 필사본과 활자본의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 박일용(1993),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사실과 낭만의 소설사적 전개양상』, 집문당.
- 박혜숙(2006), 「여성영웅소설과 평등·차이·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화사연구』 31, 민족문화사학회, 156-193.
- 서대석(1990), 「하진양문록」,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991-1008.
- 이경하(2001), 「하옥주론: <하진양문록> 남녀주인공의 기질 연구(1)」, 『국문학연구』 6, 국문학회, 227-251.
- 이경하(2004),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이대형(2009), 「19세기 장편소설 「하진양문록」의 대중적 변모」, 『민족문화사연구』 39, 민족문화사학회, 28-56.
- 장시광(2005), 「17세기의 소설 장르에 나타난 애정에 대한 욕망과 그 속성-<주생전>과 <소현성록> 연작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13, 온지학회, 55-80.
- 전성운(2005), 「<소현성록>에 나타난 성(性)적 태도와 그 의미」, 『인문과학논총』 16,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63-84.
- 정길수, 『구운몽 다시 읽기』, 돌베개, 2010.
- 정병설(2001),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19, 한국고전문학회, 207-235.
- 정병설(2010), 「조선후기 성(性)의 실상과 배경 - 『기이재상담(紀伊齋常談)』을

- 중심으로, 『인문논총』 64,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63-202.
- 조광국(2010a), 『『하진양문록』: 여성중심의 효담론』, 『어문연구』 38-2, 한국어문교육연구, 193-218.
- 조광국(2010b), 『<벽허담관제언록>에 구현된 상층여성의 애욕담론』,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85-314.
- 최기숙(2009), 『여성인물의 정체성 구현 방식을 통해 본 젠더 수사의 경계와 여성독자의 취향 - 서울지역 세책본 <하진양문록>의 서사와 수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361-398.
- 피에르 부르디외(1995), 정일준 역,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원고 접수일: 2011년 4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1년 5월 24일

게재 확정일: 2011년 5월 25일

ABSTRACT

Love Conflict in the *Hajinyangmunnok* and the
Self-censorship of the Female Reader

Lee, Kyungha

This article aims to re-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in male and female character of the *Hajinyangmunnok*. It also attempts to re-assess the meaning of the conflict surrounding their love. Previous studies on Korean heroine novels have tended to focus on the heroic actions and internal anguish of the main female character. However, it is argued that, in the case of the *Hajinyangmunnok*, the main focus of the story is the love struggle between the two main characters. Therefore, *Hajinyangmunnok* should be regarded, above all, as a romance novel. The fact that it is the hero character that is 'willing to do everything to obtain the love of one woman' is also pointed out. It should be stressed that this type of character is rare in Korean novels of the Joseon period.

Based on an examination of the above, it is argued that the love conflict which appears in *Hajinyangmunnok* should be approached as a kind of self-censorship by upper class females who represented the main readership of the novel. Since upper class females were the most sexually

oppressed group of the late Joseon period, it is maintained that the authors and readers of the romance novels had to regulate expressions regarding love according to the universally accepted limits of the time. In this context, the love conflict between the male and female character can be regarded as representing the conflict between love-lust and sexual morality which existed within the mind of the upper class female reader.

